

인터뷰

“자아확인에 눈뜨는 ‘모범주부’의 고행기”

새 장편 〈혼자 눈 뜨는 아침〉 낸 소설가 이경자 씨

〈절반의 실패〉의 작가 이경자 씨의 새 장편소설 〈혼자 눈뜨는 아침〉이 도서출판 푸른 숲에서 발간됐다. 이 씨는 여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학적 탐구를 통해 주목받아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주의 작가. 이번 작품 역시 ‘결혼이란 무엇인가, 주부란 또한 무엇인가’에 대한 지은이의 오랜 고민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는 소설이다.

“여성은 결혼을 함으로써 ‘여자’가 아닌 ‘주부’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 희망, 재능, 능력 등을 모두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현모양처’와 ‘모성애’라는 두가지의 신비화된 굴레에 묶여 끊임없는 자기희생과 자기 부정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이 씨는 〈혼자...〉을 통해 ‘결혼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과거의 삶을 부정하게 한다’는 나름대로의 명제를 독자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한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40세를 전후한 ‘모범적 주부’인 주인공이다.

비교적 성공한 남편의 아내로서, 칭찬받는 며느리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주인공은 남편의 외도를 접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반추하게 된다. 그리고 그 혼란의 와중에서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해주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된다. 그로써 주인공은 진실한 남녀간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것에 얽매어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정체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와 그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는 다분히 봉건적입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여성에게는 여전히 완벽한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지요. 남성중심주의와 매매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현실과 자기 확인과 존중을 원하는 여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새로운

풍속에 상당한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결혼과 주부라는 주제와 함께 이 씨가 중요시하고 있는 또하나의 문제는 바로 여성의 성적 경험과 관련한 것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관념은 여성이, 특히 가정주부가 성적으로 풍부한 느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여러가지 장치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평등함으로 인해 발생하 것들도 상당수 포함되어있 요. 이 글의 주인공을 통 인간적인 존중이 갖든 사이에 비로소 온전한 성적 만족이라 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 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주부들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갈등들을 조목조목 다루고 있 이 작품은 발간 2주만에 재판 돌입하는 등 벌써부터 독자들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씨는 이러한 독자들의 호 이 자신의 소설에 비로소 ‘나’로 인한 연륜이 쌓이기 시작 기 때문일 것’이라 풀이한다

“〈절반의 실패〉는 우리 사 속에서 여성이 겪고 있는 온 고통과 불평등함에 대한 핵심 을 쏙쏙 뽑아내 그것들만 연결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읽는 독자들 은 충격, 분노, 반발, 긴장 같은 강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 던 것입니다. 주제가 너무 선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생각 여유를 주지 못한 것이지요”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 장편은 아무런 준비 없이 책 들어도 차분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며 읽을 있도록 상당한 감정적 여운을 소설적 재미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딸들에게 생리에 대한 자 심을 심어주는 등 여성으로 태어났음을 자량으로 삼을 이는 이들로 키우기 위해 애쓰는 이경자 씨. 그는 앞으로 ‘어머니와 딸’, 그리고 ‘여속’에 내재해 있는 봉건성’에 대한 작품들을 써내려갈 작정이다.